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강론
아빠와 일곱 살 난 아들, 다섯 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날 등산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 급하게 수혈이 필요하게 됐는데 가족 중에 아들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딸뿐이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잠시 동안 무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선생님은 수술이 대성공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구나."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은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전 언제 죽게 되나요?"
아빠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나?"
"피를 뽑으면 곧 죽지 않나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에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던 말이나?"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오빠에 대한 동생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줄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순순히 바칠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목숨을 바쳐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목숨까지도 주셨으며, 심지어 당신의 몸과 피까지도 성체와 성혈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포함한 모든 것

을 주셨듯이 그것을 받아 모시는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성체성혈 대축일의 의미입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바탕 큰 격전이 오고 간 후에 부상을 당한 어느 병사가 애타게 마실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를 본 군중 신부는 자신의 수통에 약간의 물이 남아있음을 알고 그 부상병에게 수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갈증으로 숨이 넘어갈 것 같던 부상병은 급히 물을 마시려는 순간 모든 소대원들이 자기를 애타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증으로 목이 타기는 너무나없이 똑같았던 것이지요. 부상병은 상사인 소대장에게 수통을 건넵니다. 소대장이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없었지요. 소대장은 수통을 집어 들고 꿀꺽꿀꺽 소리가 나게 물을 마시고는 부상당한 부하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려던 부상병은 수통의 무게가 전혀 줄지 않은 것을 눈치 챘습니다. 소대장의 뜻을 알아들은 부상병은 소대장처럼 소리를 내어 물을 마시고는 다른 병사에게 그 수통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전 소대원들이 모두 꿀꺽꿀꺽 소리 나게 물을 마셨지요. 마침내 한 바퀴를 다 돈 수통은 본래 주인인 군중 신부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물은 전혀 줄지 않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그 곳에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누려는 마음만으로도 갈증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노력이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중요한 의미는 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눔은 많이 가지고 작게 가지고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할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성체성혈 대축일에 성체를 받아 모신 여러분이 먼저 나눔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양 신부(서울대교구 오금동본당 주임)

먼저 주어야만 돌아오는 마음의 메아리

마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생각은 우물을 파는 것과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흐려져 있지만 차차 맑아지니까요.

살다 보면 진정 우리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수는 맞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병은 육체의 병이지 마음의 병은 아닙니다. 성한 다리가 절룩거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리에 생긴 이상이지 마음에 생긴 이상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육체의 병 때문에 마음까지 고통받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도 남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병들면 무척 곤란한 일입니다.

마음은 우리 몸의 뿌리같은 것이라서 뿌리마저 병들면 회생은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순수할수록 더 무게가 나갑니다.

마음은 팔고 사지 못하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정하/돌아가고 싶은 날의 풍경 중에서-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식사 친교 후 ▶바느질대회 : 매월 경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식사 친교 후

예수 성심 성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굿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굿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결단 사람들도 부끄러이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세번)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야외미사 안내

일시: 6 월 17일(주일) 오후 2시

장소:Shade's Mill Conservation Area, Cambridge
(400 Clyde Road Cambridge. T.519-621-3697)

(Franklin Blvd.와 Avenue Rd.)정문은 Avenue Rd.

▶공원 내 집합장소 -Diamond Shelter

▶일정 : 1:00- 사목위원& 각 구역장 집합
(장내정리및 행사준비)

2:00- 야외미사 집전

3:00- 식사

4:00- 체육대회:

족구- 남자팀(홍백전)-경기: 3 세트

피구- 여자팀(홍백전)-이하 상기동일

5:30- 보물찾기(대상: 공소 교우 전체)

6:30- 마침기도와 신부님 강복(폐회)

홍팀: 1, 3, 5구역(붉은색 T셔츠 착용 필수) 10명
백팀: 2, 4, 6구역(흰색 T셔츠 착용 필수) 10명

▶알림: 전체 교우를 대상으로 이번 행사에 필요한
상품을 Donation 받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행사부장(윤명원 형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가책과
매일미사책 그리고 헌금 봉헌도 꼭 챙겨 오십시오.

◎ 성서 100주간 시행

구약과 신약 성서를 3년에 걸쳐 공부하고
묵상하는 참신앙인의 샘터입니다. 5월 중에 각
구역별 첫모임을 통해 참가자가 확정되었고
제반 논의를 거쳐 예정대로 6월 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2, 5, 6 구역-김영삼 시몬 형제 (15명)

▶3, 4 구역-장용경 루시아 자매 (6명)

◎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교우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개설한 우리 공동체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
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소속본당,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식사친교' 일정 공고

예정대로 오늘 부터 공사 완료 시 까지 휴무하고,
그 대신 기존의 식사 봉사조에서 순번대로 간식과
커피를 준비키로 했습니다. 변함없는 친교의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 바뇌기도회 :6월 13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박순웅 형제 자택

◎ 6월 구역모임

▶5구역: 6월22일 오후7시 신상우형제 자택

▶6구역: 6월22일 오후7시 남상목형제 자택

◎ 공동체 성가집 Special 판매

성가집이 필요한 기존 신자들을 위해 특별가로
제공합니다.(\$10) 문의: 박 재영 형제 (선교부장)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청소년 하계 여름캠프

-일시 : 6월30일(토) ~ 7월2일(월)

-장소 : Orangeville, Sagrada Familia Centre

-대상 : Gr 7~ 대학생 (9월 기준)

-비용 : 1인 \$70

-접수마감 : 6월 3일 선착순 50명 (공소 포함)

-접수 : 청소년 담당 선생님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나부터 먼저' 참사랑을 배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탐욕을 버리는 겸손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 부모를 만난 것도 숙명이듯이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숙명입니다.
나의 의지나 선택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 그대
서 '대대로 물려주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의 나와 너, 우리가 하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
장차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분명 숙명이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미 사 전 레

해 설 |이우원 차주 해설 김직현

화 답 송 |너는 델키세택의 품위를따라
영원한 사제이니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

이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182) 신묘하온 이 영적

봉 헌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 체 (209) 사랑하올 예수 성심이여

퇴 장 (201) 은총의 샘

독 서

6월 10일 이명희 이상희

6월 17일 김영삼 김정현

6월 24일 이동기 이정숙

봉 헌

6월 10일 노원균 노숙희

6월 17일 이명희 이상희

6월 24일 김영삼 김정현

친 교

6월 10일 영광팀 6월 17일 장미팀

6월 24일 백합팀

2007-23

2007. 6. 10.

그리스도의성체성혈대축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2007년 6월 3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540.00

교무금 : \$ 180.00

Total: \$ 720.00